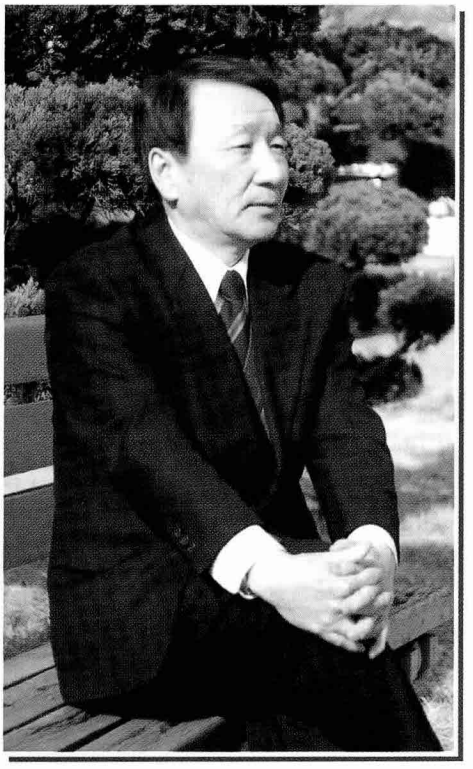
우리는 정(情)을 너무 쉽게 지나치며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강렬하고 화려한 햇빛에 가려진 달빛의 우아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새삼 생각게 한다. 하지만 어쩌면, 잊고 살아간다는 것은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숨 가쁘게 지난 20년이 넘도록 안전만 바라보며, 우리 나라의 안전의 뿌리를 내리게 한 한사람이 있다.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정국삼 교수님이다. 안전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자신의 낙(樂)이라고 말하는 이 분을 훈풍으로 봄을 재촉하는 따듯한 오후 연구실에서 만나 보았다.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안전공학과 정국삼



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 산업안전의 선구자입니다. 처음 안전에 관심을 갖게된 동기는 무엇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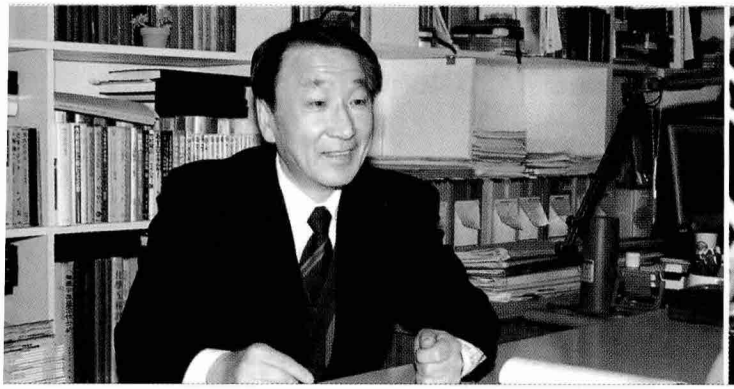
제가 대학원 학위 과정 중이었던 1970년대에는 국내 산업현장은 오직 생산성 향상과 수출 주도를 통한 경제 발전 지향에 매진하면서 사고 · 재해 및 환경오염 또한 병행하여 다발하고 있었지만 산업 활동의 부산물인양 현실로 받아들였던 당시에 석유화학 공업단지 및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및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수 없이 듣기도 하고,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으나 보안이라는 명분 아래 매스컴에서 조차 보도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문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중 1984년에 충북대학교로부터 산업안전공학과의 설치를 권유받고 시작한 것이 2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산업안전이라는 학문적, 제도적 기틀은 전무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안전공학도로서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일본의 유일한 요꼬하마 국립대학 안전공학과에 가서 연구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뛰어 다닌 끝에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은 그동안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안전의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산업이 점차 고도화, 세분화되어 감에 따라 안전의 인식과 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안전관리도 오늘날과 같이 근로자에게 작업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형성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활동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법에 의한 타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인명존중의 인식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 노동생산성의 증대 및 제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회사의 경영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기업 내에서 자율적인 안전활동 및 관리가 부각되며 점차 정착해 나아가는 단계라고 생각



합니다.

지난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원시적인 재해가 여전합니다. 문제점은 무엇이라 여기시는지요.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전반에 아직도 바뀌지 않은 안전불감증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설마주의가 만연한 이상 원시적인 사고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을 기업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투자가 이루어져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있으나, 중소규모 사업장은 다릅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산재사고의 2/3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도 단순함에도 이익이 우선인 중소기업에서는 안전에 투자할 경제적인 힘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 안전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두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융자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원정책을 남발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선지원 후관리 차원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 산업안전관리 체제는 자율안전이라는 취지 아래 올해도 많은 변화를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우리 산업사회의 안전은 자율적인 안전경영 체제에서의 자율안전으로 가야만 합니다. 물론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자율안전이라는 목적은 같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의 협력적 안전문화의 정착이 기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율적 안전경영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기하는 관리 지도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향후 우리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안전문화를 외치며 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한 안전을 뜻하는 안심문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산업재해는 기계의존형, 두뇌산업에 따른 인간의존형 재해 등 복합적인 재해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인간지향적인 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중심의 주관적인 사고가 많아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심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주관적인 안전, 인간 내적인 안전관리가 중시되어야 합니다. 즉, 사람 스스로 안심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인 "안심문화"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종덕 기자〉